



전상현, 신인왕 역전 노린다



올 시즌 55경기 1승 4패 14홀드... 불펜 필승조서 맹활약
정우영·원태인과 경쟁... 이닝당 출루허용·피안타율은
KIA, 1985년 이순철 후 배출 끊겨... 잔여 경기 호투 기대

막판 1위 싸움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KBO 리그에 또 다른 뒤집기쇼가 눈길을 끈다. KIA 타이거즈의 '포커페이스' 전상현(사진)이 신인왕을 위한 마지막 여필에 나선다.

타이거즈는 11번이나 한국시리즈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KBO 리그에 큰 족적을 남겼다. MVP와 골든 글러브 등 많은 타이틀도 챙겼지만 유독 인연이 없는 상이 있다.

바로 신인상이다. 1985년 이순철이 타이거즈의 첫 신인상을 수상한 이후 30여 년이 지나도록 명맥을 잇지 못하고 있다.

올 시즌에도 KIA는 신인왕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았다. LG 사이드암 정우영이 초반 강한 인상을 남기며 내내 주목을 받은 가운데 삼성 우완 원태인이 대항마로 나서는 것 같았다. 하지만 원태인의 하락세 속, 팀 성적까지 더해 정우영의 독주가 이어지는 모양새였다.

시즌 마지막 새로운 복병이 등장했다. 차곡차곡 성적을 쌓은 '중고 신인' 전상현이 뒤늦게 주목을 받고 있다.

전상현은 2016년 대구 상원고를 졸업하고 KIA 유니폼을 입은 4년 차 선수다. 상무에서 복무했던

지난해에는 퓨처스리그 평균자책점·다승왕 2관왕에 오르며 실력을 발휘했다. 화려한 이력 탓에 전상현은 자신이 '신인왕 후보'라는 걸 최근에야 알았다.

KBO 리그 표창 규정에서 따르면 등록 5년 이내, 30이닝 이내의 투수는 신인왕 자격을 갖는다. 프로 4년 차 전상현은 데뷔 첫해 13.1이닝을 던졌고, 지난해 제대 후 10.1이닝을 던지면서 30이닝을 넘지 않았다.

전상현은 "후보에 대한 정확한 이닝과 규정을 자세히 몰랐다. 요건이 되는 줄 몰라서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매니저님이 말해주셔서 알게 됐다"며 "처음에는 '제가요? 안 될 걸요?' 라고 말했다"고 웃었다. 처음에는 욕심이 없었지만 9월 7경기에서 '0의 행진'을 펼치면서 전상현의 마음에도 변화가 생겼다.

전상현은 "솔직히 큰 욕심이 없었는데 선배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니 신경이 쓰이게 됐다.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니 욕심이 난다"고 욕심을 드러냈다.

선배들의 이야기대로 전상현은 충분히 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성적을 만들었다.

정우영은 올 시즌 54경기(64이닝)를 소화하면서

평균자책점 3.23, 4승 6패 1세이브 15홀드를 기록하고 있다. 이닝당 출루 허용률은 1.14, 피안타율은 0.232. 38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면서 18차례 볼넷을 허용했다.

전상현은 55경기에서 58.2이닝을 막으며 평균자책점 3.22, 1승 4패 14홀드를 만들었다. 이닝당 출루 허용률은 1.09, 피안타율은 0.207로 더 좋다. 20개의 볼넷을 내준 전상현은 위력적인 구위로 59개의 탈삼진도 장식하면서 볼넷과 탈삼진 비율에서도 돋보인다.

4위와 7위라는 팀 성적 탓에 상대적으로 전상현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지지만 WAR(대체선수대비 승리기여도)을 봐도 1.17로 0.47의 정우영보다 앞서 있다.

전상현은 우울한 KIA의 2019시즌에 '젊은 마운드의 힘과 희망'을 보여준 대표주자이기도 하다.

전상현은 "원래 긴장을 잘 안 한다. 자신감이 가장 큰 무기인 것 같다. 포커페이스라는 표현이 좋다"며 "최근 컨디션이 좋아서 시즌이 끝나는 게 서운하지만 올해 배운 게 많아서 크게 아쉽지는 않다. 대신 포스트 시즌에 공을 던지지 못하는 게 너무나 아쉽다"고 말했다.

또 "이제 두 경기 남았는데 아프지 않고 남은 경기 잘 치르겠다. 잘해서 신인왕 어필하고 싶다"며 "또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올해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두며 매년 발전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초특급 배팅볼 투수 양현종 "잘 쳐주면 고맙죠" 이진영 수비 비결은? ... "호령이형 따라했더니"

덕아웃 T 특특

▲잘 쳐주면 고맙죠 = KIA의 '초특급 배팅볼' 투수가 눈길을 끌었다. 키움과의 홈경기가 열린 24일 KIA 타자들은 특별한 배팅볼을 치면서 훈련을 진행했다. '에이스' 양현종이 배팅볼 투수를 지치 하면서 마운드에 오른 것이다. 양현종은 지난 17일 NC전 등판을 마지막으로 엔트리에서 제외됐지만 선수단과 동행하고 있다. 동료 타자들을 위해 구슬땀을 흘린 양현종은 "공을 너무 안 던지면 그럴 것 같기도 해서 던지게 됐다. 정식으로 마운드에서 던지는 게 아니라서 스트라이크가 잘 안 들어 가서 미안했다"며 "우리 타자들이 잘해줬으면 하는 마음이다. 잘 쳐주면 고맙을 것 같다"고 말했다. 양현종은 또 가장 타격감이 좋은 타자로 LG시절 양현종 킬러로 통했던 문준재를 꼽아 사람들을 웃겼다.

▲그냥 착실한 선수? = 24일 KIA 덕아웃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개교 100주년을 맞은 송정동초 야구부 학생들이 챔피언스필드를 찾아

KIA 훈련을 지켜보고 기념촬영도 했다. 후배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송정동초 출신의 박준표는 "3학년 때 아버지가 시켜서 야구를 시작했다. 야구 못 했다. 코치님한테 매일 혼났다"고 옛 시절을 떠올렸다. 이날 송정동초 선수들을 인솔한 정재열 코치도 "그냥 착실한 선수였다. 요령을 많이 피웠다"며 웃음을 터트렸다.

▲호령이형 따라 하다 보니? = 경찰청에서 수비를 키워서 왔다는 외야수 이진영. 수비 향상 비결은 경찰청 동기, 김호령이었다. 리그에서도 알아주는 수비 실력을 가진 김호령과 2년 동안 같이 군복무를 한 게 이진영에게는 큰 공부가 됐다. "호령이 형에게 왜 그렇게 수비 잘하냐고 물어보니까 연습하라고 했다"며 웃은 이진영은 "그래서 연습했다. 자연스럽게 옆에 붙어있으니까 2년 내내 물어볼 것도 많았다"고 말했다. 또 "호령이 형은 타자가 움직이기 전부터 자세가 다르다. 다른 사람들은 서있다가 움직임을 주는데 도루하듯이 그렇게 타격에 앞서 움직인다. 그 자세부터 따라 했다"고 이야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가을야구 내달 3일 첫 경기

정규리그 내달 1일 종료

KIA, 이번주 토요일 LG와 최종전

2019 KBO 정규시즌 폐막일이 10월 1일로 늦춰졌다.

KBO가 25일 정규시즌에서 우천으로 취소된 경기의 재편성 일정을 확정했다. 우천으로 취소된 경기는 총 6경기로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편성됐다. 이에 따라 KBO는 내달 1일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NC와 두산의 경기를 끝으로 정규시즌 대장정을 끝내게 된다.

만약 우천으로 추가로 취소 경기가 나올 경우 발표된 일정의 예비일로 우선 편성된다. 예비일이 없을 경우 다음 날 동일 대전 시 더블헤더, 동일 대전이 없을 경우에는 추후 편성된다.

우천 등으로 연기되는 경기가 포스트시즌 진출 팀과 관계없는 대진일 경우에는 포스트시즌의 이동일에도 경기를 치를 수 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과 관계없는 팀 간의 경기가 우천 등으로 연기될 경우에는 정규시즌 최종일과 와일드카드 결정전 개막일 사이의 이동일에 경기를 갖는다.

한편 KIA는 잔여경기 일정 중 취소된 경기가 없어 앞서 예정된 대로 오는 28일 챔피언스필드에서 LG와 시즌 최종전을 치른다. /김여울 기자 wool@

방심하다 코 납작해진 토트넘

카라바오컵 4부팀 콜체스터에 패배
1부리그 팀 중 유일 탈락
2군 내세워... 손흥민 후반 교체 출전

손흥민이 후반 교체로 출전한 토트넘(잉글랜드)이 4부리그의 콜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컵대회 32강전에서 무득점에 그친 뒤 승부차기 끝에 탈락하는 망신을 당했다.

토트넘은 25일 영국 콜체스터의 잡서브 커뮤니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2020 잉글랜드 풋볼리그(EFL) 카라바오컵 3라운드(32강)에서 리그2(4부리그)의 콜체스터와 전후반 90분 동안 0-0으로 비긴 뒤 연장전 없이 진행된 승부차기에서 3-4로 패했다.

지난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에 빛나는 토트넘은 이번 시즌 컵 대회 첫 경기에서 4부리그 팀에 무릎을 꿇으며 이번의 희생양이 됐다. 반면 15년 만에 컵 대회 32강에 진출한 콜

체스터는 대어를 낚고 16강에 올랐다.

토트넘은 콜체스터를 상대로 사실상 2군 전력을 내세웠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토트넘 감독은 17살의 유망주 트로이 패럿과 20살의 젊은 수비수 자빗 탕강가에게 1부리그 데뷔 기회를 줬다. '골잡이' 해리 케인을 아예 출전 선수 명단에서 제외한 가운데 손흥민, 크리스티안 에릭센, 무사 시소코 등 주전급 선수들을 교체멤버로 벤치에 앉혔다.

패럿을 원톱 스트라이커로 내세우고 루카스 모라와 델리 알리에게 2선 공격을 맡긴 토트넘은 콜체스터의 밀집수비를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고 진땀을 뺐다.

전반을 0-0으로 끝내면서 답답한 '영의 행진'이 이어지자 포체티노 감독은 후반 21분 벤치에서 대기하던 손흥민과 크리스티안 에릭센을 동시에 투입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왼쪽 날개로 출격한 손흥민은 그라운드에서 나서자마자 콜체스터의 왼쪽 측면을 공략하며 공격의 숨통을 열었고, 후반 30분에는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시도한 강한 오른발 감아차기 슈팅이 크로스바를 살짝 넘었다.

밀집수비를 펼친 콜체스터는 후반 37분에야 팀의 첫 슈팅을 기록했다.

토트넘은 후반 44분 페널티 지역 왼쪽 구석에서 손흥민이 올린 크로스를 모라가 헤딩으로 연결했지만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다. 토트넘은 4분의 후반 추가시간까지 득점을 따내지 못해 승부차기에 들어갔다.

토트넘의 선수로 시작된 승부차기에서 1번 키커 에릭센의 슈팅이 콜체스터의 골키퍼 딘 그레겐의 선방에 막혔다.

콜체스터 3번 키커의 실축으로 한숨을 돌리는 듯했던 토트넘은 4번 키커 손흥민의 득점에 성공했지만 콜체스터의 4번 키커 코원홀에게 실점하며 3-3 동점이 됐다.

이런 가운데 토트넘의 마지막 키커로 나선 모라의 슈팅이 크로스바를 훌쩍 넘어가며 3-4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연합뉴스



손흥민